

제8장 닦기현상이 일어날 때의 발음

제20항. 받침 《ㄷ, ㅌ, ㄹ》 뒤에 토나 뒤 붙이인 《이》가 올 때 그 《이》는 각각 [지, 치]로 발음한다.

례: 가을걷이[가을거지], 굳이[구지], 해돋이[해도지], 같이[가치], 붙이다[부치다], 핥이다[할치다]

제21항. 받침 《ㄱ, ㅋ, ㆁ, ㆑》, 《ㄷ, ㅌ, ㅈ, ㅊ, ㅌ, ㅍ》, 《ㄹ, ㅂ, ㅃ, ㅍ》 뒤에 자음 《ㄴ, ㄹ, ㄷ》이 이어질 때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.

1) 받침 《ㄱ, ㅋ, ㆁ, ㆑》은 [ㅇ]으로 발음한다.

례: 익는다[잉는다], 격멸[경멸], 식료품[싱료품], 뭉나눔[몽나눔], 동녘노을[동녕노을], 부역문[부영문], 당네[당네]

2) 받침 《ㄷ, ㅌ, ㅈ, ㅊ, ㅌ, ㅍ》은 [ㄴ]으로 발음한다.

례: 받는다[반는다], 맡여느리[만여느리],

웃느냐[운느냐], 웃매무시[온매무시],
낫날[난날], 짓먹이[전머기], 꽃눈
[곤눈], 발머리[반머리], 있는것[인
는것]

3) 받침 《ㄹ, ㅂ, ㅍ, ㅍ》은 [ㄹ]으로 발음
한다.

례: 밉는다[밤는다], 법령[범령], 없는
것[엄는것], 앞마을[암마을]

제22항. 받침 《ㄹ》 뒤에 《ㄴ》이 왔거나 받
침 《ㄴ》 뒤에 《ㄹ》이 올 때에는 그 《ㄴ》을
[ㄹ]로 발음한다.

례: — 들놀이[들로리], 물농사[물롱사]
별나라[별라라], 살눈섭[살룬섭]
— 근로자[글로자], 본래[볼래], 천
리마[철리마], 난로[날로], 진리
[질리], 원리[월리], 권리[퀄리]

그러나 형태부들의 경계에서는 뒤의 《ㄹ》
을 《ㄴ》으로 발음한다.

례: 순리익[순니익], 발전량[발쩨냥]

제23항. 받침 《ㄴ》 뒤에 《ㄴ》이 올 때에
는 적은대로 발음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.

례: 눈나비, 단내, 분노, 신념, 안내

제24항. 받침소리 [ㄹ, ㄴ]뒤에서 《ㄹ》
은 [ㄴ]으로 발음한다.

례: 법령[범녕], 목란[몽난],
백로주[뱅노주]

그러나 모음 《ㅏ, ㅑ, ㅓ, ㅕ》의 앞에서
는 [ㄴ] 또는 [ㄹ]로 발음할 수도 있다.

례: - 식량[싱냥/싱량], 험력[험녁/험력]
- 식료[싱뇨/싱료], 청류벽[청뉴벽/
청류벽]